2017 5·18 문학상 동화부문 심사평
-동화작가 임정자, 유은실

올해 동화부문에 응모한 작품은 모두 61편이었으며, 작품 심사는 여느 때처럼 작가 이름을 지운 상태의 원고로 진행했다.
5·18문학상 응모작들이다 보니 대다수가 5·18민주화운동을 다루고 있었다. 특히 5월 18일부터 27일 사이의 광주를 스케치한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어떤 작품은 37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5·18의 아이'를 끌어안고 살아온 이가 그 상흔을 드러내고 있구나 짐작케 했고, 어떤 작품은 참으로 열심히 조사하고 썼구나 싶어 박수를 치게 만들기도 했다. 또 <운동화 세 켤레> 같이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쓴 작품들도 있었고,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우키시마호를 탔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배가 침몰하여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아픔을 다룬 <집으로 가는 배> 같은 작품도 눈에 띄었다. 수상 여부를 떠나 5·18과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와 분노, 함께 치유해갈 문제들을 작품으로 써낸 모든 응모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다들 열심히 쓰셨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5·18을 그린 상당수의 작품이 그날의 현장을 그려내고, 얼마나 무고한 시민들이 신군부의 총탄에 쓰러져 갔는지에 집중한 나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이나 언급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어떤 이는 반드시 그 날을 써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다.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정리된 자료만 보지 말고 실제 경험자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날의 광주를, 80년대라는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젊은 작가지망생들은 특히나.
이번에 본심에 오른 작품은 「꾀꼬리 합창단」, 「레벨업」, 「유통기한 친구」, 「비밀 지키기」 모두 4편이었다. 「꾀꼬리 합창단」은 5월 23일부터 25일까지의 광주를 방송국 합창대회에 참여하려는 세 어린이의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갔으며, 「비밀 지키기」 18일부터 21일 아세아자동차 공장에서 장갑차와 군용트럭을 가지고 투쟁에 나서는 순간까지를 한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나갔다. 두 작품 모두 좋은 작품이었고, 글쓴이의 정성이 곳곳에 배어 있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꾀꼬리 합창단」의 경우, 정애와 어머니 상봉 관련 에피소드는, 아이들을 광주 현장으로 데려가기 위해 필요한 설정이긴 했으나 상당 부분 작위적으로 작동했다. 군데군데 과하다 싶은 장면들은 모두 이 설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밀 지키기」는 인물이 생생하고 건강한 힘이 느껴지나 디테일 면에서 걸리는 게 많았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아빠가 슬리퍼를 신고 장갑차를 탈취한 뒤 몰고 가는 장면 같은 게 그렇다. 핍진성 면에서 아쉬웠다.
「레벨업」은 "게임의 신들과 친해지면 만랩 찍고 대장되는 건 일도 아니"라는 친구의 말에 이끌려, '일베'에 접속하게 되는 '민규'의 이야기다. 민규는 '게임의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홍어' 등으로 5·18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글에 덧글을 단다. 그러나 자기 가족의 아픔을 알게 되면서 5·18의 진실을 깨닫고 일베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섬세하게 그려졌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2017년을 살며 게임을 즐기는 어린이와 5.18을 연결하여 생동감 있게 5·18의 현재를 그려냈다는 점은 다른 응모작과는 확연히 다른 미덕이었다.
「유통기한 친구」는 몸이 불편한 '나'가 화자가 되어,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는 도우미 친구와의 관계를 그린 작품이다. 장애인을 '수혜자'의 위치에 놓지 않는 전학생 도우미 '다정'의 캐

릭터, ‘나’와 ‘다정’이 좌충우돌 속에서 마음을 열고 ‘유통기한 친구’가 아닌 ‘진짜 친구’가 되는 과정이 따뜻하게 그려져 있다.

4편 모두 훌륭한 작품이었으나 어쩔 수 없이 수상작을 골랐다. 「레벨업」과 「유통기한 친구」를 공동수상작으로 결정한다. 「레벨업」은 동화라는 장르 안에서 80년의 5·18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여기의 5·18로 그려낼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유통기한 친구」는 5·18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약자이자 편견의 대상자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둘은 모두 궁극적으로 5·18 정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세계의 범주 안에 있다.
좋은 작품들을 만나서 기뻤다. 안타깝게 수상하지 못한 분들의 정진을 빈다. 더불어 5·18정신을 ‘동화’라는 장르를 통해 구현하여, 아이들과 소통하려 애쓴 모두에게 감사드린다.